

이슈분석

#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이병희\*

## I. 청년층 노동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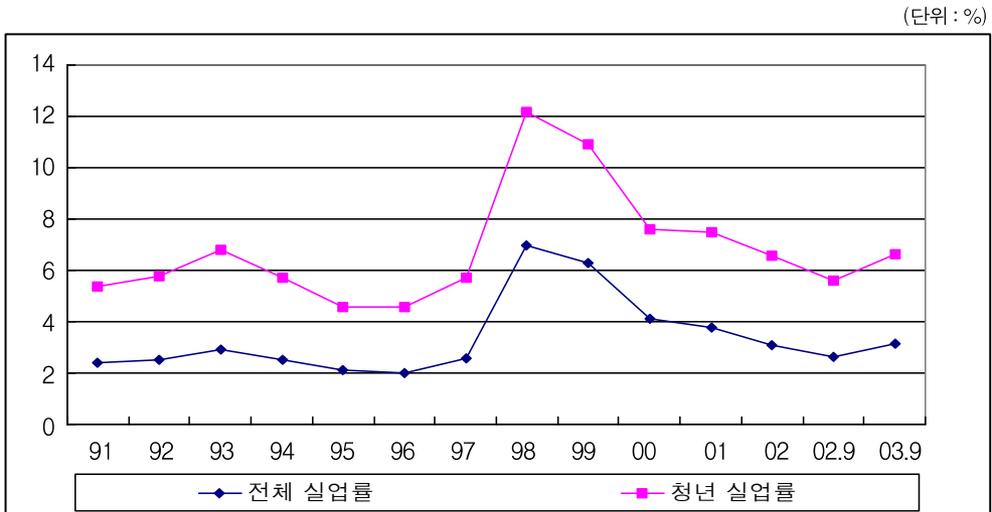
### ◆ 청년실업 현황

-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2003년 9월 현재 6.6%로, 전체 실업률 3.2%의 2.1배 수준
  - 청년 실업자수는 320천명으로 전체 실업자 730천명의 43.8%를 차지
-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 실업률은 1998년 최고 12.2%까지 상승하였다가 2002년 6.6%까지 하락하였으나
  - 최근 경기 위축에 따라 금년 들어 7월까지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8월 이후 다소 감소
  - 청년 실업률은 전년동월 대비 1%포인트 높은 수준
  - ※ 2003년(2002년 대비) 추세 : 5월 7.2%(1.0%포인트)→6월 7.4%(1.4%포인트)→7월 7.5%(1.3%포인트)→8월 6.9%(0.9%포인트)→9월 6.6%(1.0%포인트)

---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lbh@kli.re.kr).

[그림 1] 청년층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청년층 취업난의 실태

- 그러나 지표상으로는 청년 실업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그리고 예년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움.
  - 청년 실업률이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은 것은 OECD 국가들에서 공통된 특징
  - ※ 2001년 OECD 평균 전체 실업률 6.4%, 청년(15~24세) 실업률 12.4%(*Employment Outlook*, 2002)
- 그럼에도 청년층 일자리의 감소, 유희화 등으로 인해 청년층 취업난이 제기됨.
- 청년층 일자리의 상대적 감소
  - 청년층의 취업자수는 1996년의 5,421천명에서 2002년 4,799천명으로 6년 사이에 622천개 감소
  - 청년층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감소한 일차적인 원인은 청년층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지만,
  - 청년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 46.2%에서 2002년 45.1%로 감소하여 청년층 일자리가 상대적으로도 감소

<표 1> 청년층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단위: 천명, %)

	1996 (C)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D)	증감 (D-C)
취업자(A)	5,421	5,349	4,733	4,691	4,879	4,815	4,799	-622
실업자	264	322	655	574	402	388	341	77
비경제활동인구	6,059	6,053	6,264	6,197	5,962	5,749	5,511	-548
계(B)	11,743	11,724	11,651	11,461	11,243	10,952	10,651	-1,092
취업자 비율(A/B)	46.2	45.6	40.6	40.9	43.4	44.0	45.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정규교육을 마치고서도 무직 상태에 있으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유휴인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릅니다.

- 2003년 9월 현재 청년층 졸업·중퇴자 가운데 실업자는 생산가능인구의 5.0%(273천명)이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비경제활동인구도 4.4%(241천명)임. 이에 따라 유휴인력의 비중이 청년인구의 9.4%에 이릅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자는 실업대책의 전형적인 대상이지만, 학교를 마치고 비경제활동상태로 있으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자도 학교-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청년층 취업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실업대책뿐만 아니라 학교-노동시장 이행을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됨을 시사함.

<표 2> 학교를 마친(졸업·중퇴) 청년층의 유휴화율(2003년 9월)

(단위: 천명, %)

		규 모
취업자		3,825 ( 69.6)
실업자(B)		273 ( 5.0)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을 준비하는 비경제활동인구(C)	241 ( 4.4)
	기타 비경제활동인구	1,156 ( 21.1)
계=생산가능인구(D)		5,496 (100.0)
유휴화율=(B+C)/D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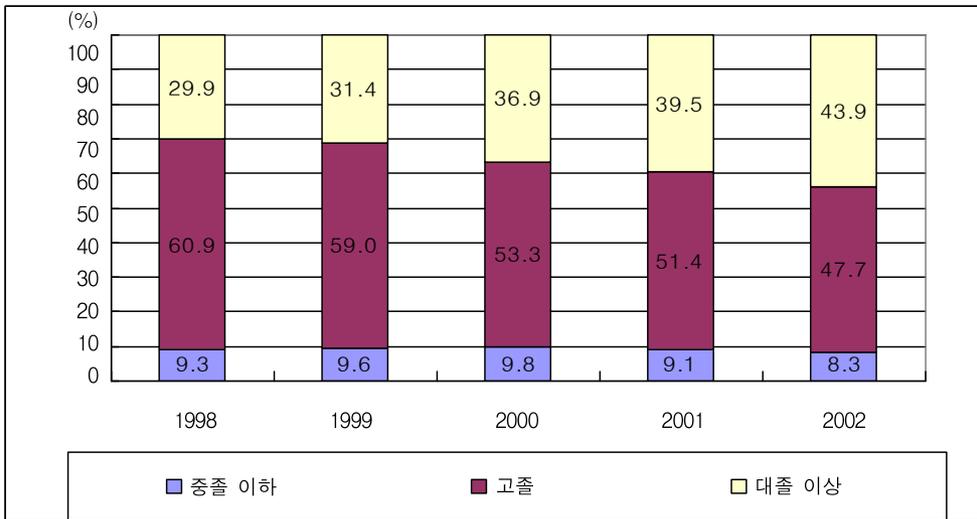
주: 취업 준비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을 위해 학원·직업훈련기관에 다니거나 개별적인 취업 준비를 한다고 응답한 비경제활동인구임. 따라서 취업 준비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가 아니며, 취업을 준비하는 무직자라고 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3. 9.

◆ 청년 취업애로층의 구성

- 고학력화의 진전에 따라 청년 실업자 중에서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이상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대졸 실업문제가 사회적인 현안이 되어 있음.
  - 그러나 학교를 마친 청년 실업자 가운데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가 여전히 과반수를 상회하여 저학력 청년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그림 2] 학교를 마친(졸업·중퇴) 청년층 실업자의 학력별 구성비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학교를 마친 청년층(졸업·중퇴자)을 대상으로 취업애로층의 구성비를 보면, 학력간 행태의 차이가 발견됨.
  - 고졸이하·전문대졸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로 포착되는 반면, 4년제 대졸 이상은 비경제활동상태에 머무르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비중이 높음.
  - 고졸 이하 인구 가운데 실업자는 5.3%로 취업 준비 비경제활동인구 3.0%에 비해 높은 반면, 4년제 대졸 인구 가운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4.5%에 비해 취업을 준비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8%로 더 높음.
  - 학력간 구직행태 및 탐색 일자리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특성별 실업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대졸 이상 청년층의 유희화를 막기 위해 교육-노동시장 이행을 원활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됨.

<표 3> 청년층 졸업·중퇴 취업애로층의 구성

(단위: 천명, %)

	실업자			취업 준비 비경제활동인구		
	인원	비율	비율	인원	비율	비율
고졸이하	154	[56.6]	(5.3)	88	[36.3]	(3.0)
전문대졸	62	[22.7]	(4.7)	56	[23.3]	(4.3)
대졸	54	[19.6]	(4.5)	94	[38.9]	(7.8)
대학원졸	3	[1.0]	(4.2)	4	[1.5]	(5.4)
전 체	273	[100.0]	(5.0)	241	[100.0]	(4.4)

주: [ ]안은 전체 실업자(또는 취업 준비 비경제활동인구) 대비 구성비이며, ( )안은 학력별 생산가능인구 대비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3. 9.

## II.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문제점

청년실업은 최근 경기 위축만이 아니라 경력중시형 노동력 수요로의 변화와 교육-노동 시장간 괴리에 의한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임

### ◆ 청년층 노동력 수요의 구조적 변화

- 경제위기 이후 대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에 의해 청년층 일자리 감소
  - 1997~2001년 동안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청년층 일자리가 195천명 감소하여 전체 일자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42.3%에서 32.2%로 감소
  - 전체 일자리와는 달리 청년 일자리의 순창출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표 4> 300인 이상 대기업의 일자리 변동

(단위: 천명, %)

	근로자수		일자리 순창출률	
	청 년	전 체	청 년	전 체
1997	627 (42.3)	667	-2.6	0.1
1998	529 (38.8)	661	-17.0	-8.3
1999	507 (36.4)	702	-4.3	1.9
2000	495 (35.4)	710	-2.4	0.5
2001	432 (32.2)	709	-13.6	-4.1

주: ( )안은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가운데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고용보험 DB.

- 주요 대기업에서 청년층 채용경향이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력중시형 채용 경향으로 전환
  - 채용된 청년층 가운데 노동시장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비중이 1997년 39.3%에서 2002년 81.8%로 급격하게 증가

<표 5> 주요 기업에서의 신규·경력 채용 추이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신규학졸자 채용	65.2	60.7	45.3	27.1	21.7	21.3	18.2
경력자 채용	34.8	39.3	54.7	72.9	78.3	78.7	81.8

주: 주요 기업은 30대 대기업, 공기업, 금융산업임.

신규학졸자 채용은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일자리를 가진 경우이며, 경력자 채용은 이전에 취업경험이 한번이라도 있었던 경우를 가리킴.

자료: 고용보험 DB.

- 중소기업에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활발
  -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일자리 창출과 소멸이 활발하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일자리 소멸 효과를 능가하여 순일자리 창출도 대규모 사업체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의 경우에도 사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순일자리 창출이 발생하는 반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1999~2001년 동안 청년층의 일자리가 순감소함.
  - 중소기업의 적극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능력의 제고 및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청년층 취업 유도 필요

<표 6> 사업체 규모별 일자리 순창출률

(단위: %)

		1999	2000	2001
100인 미만	청년	1.3	1.7	0.0
	전체	5.1	5.9	2.1
100~299인	청년	0.1	0.1	-0.3
	전체	0.5	0.4	-0.2
300인 이상	청년	-0.6	0.0	-1.0
	전체	0.1	0.4	-0.8

자료: 고용보험 DB.

- 대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둔화되고,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눈높이는 여전히 높은 상태
  - 2002년 6월 학교를 졸업·중퇴한 청년층 실업자 가운데 43.2%가 직전에 일자리를 제의받은 적이 있지만, 그 가운데 33.2%는 ‘희망임금수준, 후생복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많지 않아서’ 제의받은 일자리를 수락하지 않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02. 6)
  -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취업 지도를 통해 청년층의 눈높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 ※ 청년층의 주된 취업 경로는 가족·친지의 소개(추천) 등 연고에 의한 취업이며, 취업알선에서 공공·민간 직업안정기관(1.5%)과 학교내 취업정보실(2.2%) 등 제도적인 기능에 의한 취업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03. 5)

◆ 학교와 노동시장의 괴리

- 고등교육 진학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5~2003년간 대졸자수는 18만명이 증가하였으나,
  - 학교교육이 노동시장의 인력수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 발생

<표 7> 고등교육 기관의 진학 및 졸업생수 추이

(단위: %, 명)

	대학 진학률			졸업생수		
		인문계	실업계		전문대	대학
1980	27.2	39.2	11.4	99,302	49,567	49,735
1985	36.4	53.8	13.3	192,511	73,927	118,584
1990	33.2	47.2	8.3	253,047	87,131	165,916
1995	51.4	72.8	19.2	323,739	143,075	180,664
2000	68.0	83.9	41.9	437,987	223,489	214,498
2002	74.2	86.9	49.8	483,966	239,114	244,852
2003	79.7	90.1	57.6	504,915	246,789	258,126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8> 청년층 졸업·중퇴자의 최종학교 전공과 일자리의 불일치

(단위: %)

	매우 불일치	약간 불일치	그런대로 일치	매우 일치
고졸이하	50.6	18.3	24.2	6.9
인문계	58.9	19.2	17.1	4.7
실업계	41.6	18.6	31.1	8.8
전문대졸	33.3	15.8	26.7	24.1
대졸	25.4	15.0	27.9	31.6
전 체	40.5	16.8	25.8	16.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03. 5.

○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괴리에 따라 학교-노동시장 이행 장기화

- 학교교육을 마치고 첫 일자리에 취업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4개월로 나타나, 전년도 6월의 11.7개월에 비해 늘어났으며,
- 6개월 이내에 첫 일자리에 취업하는 비중이 63.0%에 그치며, 2년 이상 장기적인 미취업 상태에 있는 비중도 17.8%에 이릅니다.
- 첫 일자리로 이행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청년 노동력의 유희화를 야기하고, 잦은 직장이동과 빈번한 노동시장 유출입에 따라 경력 발전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 발생

<표 9> 청년층 졸업·중퇴자의 첫 취업 소요기간 분포

	2002. 6	2003. 5
졸업·중퇴 이전	14.8%	16.1%
3개월 미만	34.4%	33.5%
3~6개월 미만	15.1%	13.5%
6개월~1년 미만	8.1%	7.7%
1~2년 미만	11.0%	11.4%
2년 이상	16.5%	17.8%
평 균	11.7개월	12.4개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02. 6; 2003. 5.

### III. 추진중인 대책과 평가

-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2003년 3,612억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및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
  - 일자리 제공 : 인턴제, 초·중등 전산보조원 등
  - 취업연수 : 직장체험프로그램,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 등
  - 직업훈련 : 청소년 미취업자 및 비진학 청소년 훈련 등
- 9월 22일 정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청년 실업대책을 발표
  - 2004년에 5,400억원을 투입하여 13만명에게 일자리·연수·훈련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 강화, 노동시장 인프라 확충을 통해 3~4년 후 청년 실업률 5% 수준으로 안정화 계획
- 청년실업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식하여 단기 대책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산업정책과 교육정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제시하여 과거에 비해 진전된 내용
  - 그러나 청년 구직자층이 동질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특성별 대책의 마련
  - 산업수요에 부응하여 교육과정·정원의 자율적인 조정을 위한 유인의 제시
  - 범정부적인 추진·평가체제를 갖출 필요

### IV. 정책 방향

- 청년 실업대책은 실업률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체계화
  -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 및 직업훈련의 확대
  - 근로경험 및 경력개발을 통해 고용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추진
- 중장기적으로는 청년 실업문제를 구조적이고 예방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둬.

-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한편
  - 학교교육과 노동시장간의 연계를 통해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활용을 추진하며
  - 노동시장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년층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력수급의 효율화를 모색
- 청년 실업대책의 효과를 높이고 형평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청년 구직자층을 교육수준·재학 여부 등에 따라 세분화하고 특성·능력에 맞는 정책을 추진
  - 청년실업이 산업-교육-고용-복지 등 여러 측면에 걸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정부적인 추진·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정책간 연계·조정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체계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

## V. 주요 정책과제

### ◆ 일자리 창출

- 성장잠재력의 확충, 청년 친화적인 신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창출적인 경제·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점검체계 마련
- 중소기업의 적극 육성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세제·금융지원 확대, 'Clean 3D' 직장 가꾸기 사업 확대, 중소기업의 근로자 복지제도를 확충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 강구 추진
    - 중소기업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 향후 중소기업의 최저한세(현행 12%)를 적정수준으로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세 부담 경감 도모
    - 고용안정센터에 우수중소업체에 대한 홍보물을 전시, 정부에서 우수중소기업 발굴과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홍보 등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전환 노력

※ 현재 중견기업(50~499인)의 취업자 규모는 전체의 22.5%에 불과

○ 일자리 창출·소멸 통계시스템 구축

- 산업별·직업별·규모별 일자리 창출·소멸 통계를 생산·제공함으로써 고용창출형 경제·산업정책 수립 및 정책 평가의 기초자료 제공

◆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체계의 구축

-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 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공개하여 정원·교육과정의 자율적 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의 수요를 피드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

○ 취업실태 공표제도 도입

- 학생들이 직업전망에 기초하여 진학을 결정하고,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공분야별 취업실태를 공표
- 이를 위해 졸업자 추적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졸업자 정보를 고용보험 DB와 결합하여 전공분야별 취업실태(취업률·직장정착률·고용형태·임금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
  - 전공분야별 평균 취업실태와 함께 지역별(시·도 광역단위)·전공분야별 평균 취업실태를 함께 공표함으로써 지방대학의 위축을 방지
- ※ 교육인적자원부, 「졸업자 취업통계정보 DB시스템」 구축 중
  - 대학별 취업률 공개는 대학 자율에 맡기되, 취업률 공개 여부 및 취업률 등을 대학평가에 반영
  - 기초학문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 및 학문 후속세대에 대한 지원 등 보완조치 마련

○ 산업계의 교육훈련 참여 확대

- 「기업의 교육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질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설치하여 산업계 주도로 업종별 인력수요 분석, 직업능력표준(National Skill Standard),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 청년층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 직업지도·취업알선 등의 노동시장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으로
  - 청년 구직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혁신

- 청년 YES(Youth Employment Strategy) 프로그램 추진
  - 청년 구직자의 특성 및 능력에 따른 상담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중점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이를 위해 고용안정센터내 청년취업지원실을 중심으로 지역내 학교·기업과 연계한 전달체계의 구축
- 청년층의 특성 및 능력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의 차별화
  - 졸업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재학생 대상의 연수 지원제도 실시
  - 졸업생 대상의 취업지원서비스는 심층상담을 통하여 구직능력의 정도에 따라 중점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고, 이들에게는 취업알선·일자리 제공·근로경험·직업훈련 등을 하나의 서비스 패키지로 만들어 청년층의 능력 및 선호에 따라 지원하는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재학생에게는 직장체험(연수)을 통해 일자리 탐색 및 경력형성을 지원

### ◆ 졸업생 대상의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 제1단계(경력준비 단계 : 최대 1개월)
  - 고용안정센터내 청년층 전담상담사를 배치하여 청년 구직자에 대한 심층상담 및 취업알선을 담당하며,
  - 구직능력의 정도에 따라 중점 지원대상자를 선별하여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및 적합 프로그램을 결정
- 2단계(경력개발 단계 : 3~6개월, 훈련은 최장 1년)
  - <예시>
    - 고졸 이하 졸업생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제공, 인력부족 직종 중심의 직업훈련 등
    - 대학 졸업생 : 정보통신·문화관광·디자인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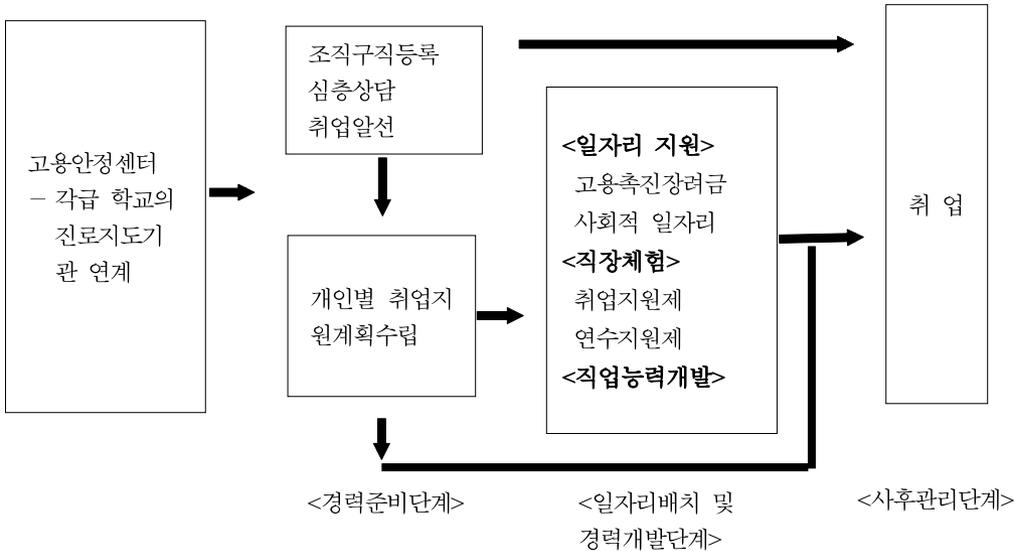
려금 지원을 통한 취업 지원, 해외 취업·연수, 취업지원(인턴)제, 지식기반직종 중심의 직업훈련 등

- 대학원 졸업생 : 연구현장 및 산업체 연수 등을 통한 취업 지원 등

○ 제3단계(사후관리 단계)

- 취업에 실패하였을 경우 다시 1단계로 피드백하여 취업실패 원인분석 및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을 수정하고, 2단계 프로그램 참여

[그림 3] 졸업생 대상의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체계도



◆ 재학생 대상의 연수지원제도

- 경력을 중시하는 채용 관행의 변화에 대응하여 직장체험을 통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현장학습,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연수지원제도 운영
  - 전공·적성에 적합한 연수기업을 선정하고 교육과 연계된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고용안정센터간 연계 강화

○ 고교생 대상의 현장실습 체계화

- 실업계 고교·인문계 고교 직업반의 경우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해 학교-고용안정센터를 연계하여 기업의 현장실습을 내실화하고, 주 1회 또는 현장실습 초기 일정기간 동안 공공훈련기관을 통해 관련 훈련 실시

- 대학생 대상의 연수지원제도 확대
  - 대학이 적극적으로 연수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가 지원 역할을 담당하며,
    - 이를 위해 전공과 부합한 연수처 발굴, 연수계약 체결, 교수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연수지원센터의 대학내 설치 권장, 연수담당 지도교수(대학)·현장 mentor(기업)을 통해 현장연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체계화하며 담당교수의 업무 경감 지원
  - 연수지원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대학의 재학생에 대해서는 현행 직장체험 프로그램(연수지원제도)에서와 같이 고용안정센터가 주관
  - 현장 연수결과에 대한 학점 인정과 경력증명서 발급
- ※ 직장체험 프로그램(대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을 대상)과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 체험활동 프로그램(중소기업 대상)간 연계

## VI. 청년 실업대책 추진 방안

### ◆ 청년 실업대책의 추진·점검체계 구축

-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 대책만이 아니라 중장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경제-교육-고용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정책간 연계·조정이 강화되어야 함.
  - 청년실업 종합대책에 대한 범정부적인 추진·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의 개선

### ◆ 청년 실업대책의 평가 연구사업 추진

- 청년 실업대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한국형 청년 실업대책의 마련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정책(프로그램)의 수립·실행·효과에 대한 평가 연구사업 추진  
(예시) 청년 실업대책의 전달체계 평가  
연수지원제도의 효과 평가 등